



UNIVERSAL SEA&AIR CO.,LTD

Busan : 9F Busan Post Office B/D #1,3-Ga, Jungang-dong, Jung-gu, Busan

Seoul : RM1906, Renaissance Tower, 14 Mallijae-Ro, Mapo-Gu, Seoul

www.univsa.com

SUB : 2020년 12월 전망

1. 귀사의 익일변창함을 기원합니다.

미주/캐나다	<p><1> 12월말까지 이미 FULL BOOKING이며, 11월보다 더 북킹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출항 지연 뿐만 아니라 심각한 LA PORT CONGESTION으로 인해 최소 1-2주 입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Rail 연결도 최소 1-2주 지연되고 있습니다.</p> <p><2> 베트남/중국/한국 모두 40'HQ Empty shortage가 심각하며, 유럽 to 아시아 수입화물 경유에는 Empty Positioning fee가 부과되면서까지 선사에서 Empty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Empty shortage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Reefer는 수요급증으로 인해 장비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p> <p><3> 1월달북킹도 이미 북킹이 월초 물량은 북킹이 마감되고 있습니다.</p>
유럽	<p><1> 지중해 구간만 10월부터 심각하게 SPACE ISSUE가 있었으나, 북유럽도 선복이 부족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p> <p><2> 지금까지 제일 선임이 적게 오른 구간이었으나 12월부터 선임을 폭발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음.</p>
중동/아시아	<p><1> 인도, 서남아 항 SPACE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고 있음.</p> <p><2> 싱가포르, 베트남 뿐만 아니라 역내 아시아지역 경우에도 선사별로 거의 2달치는 FULL 북킹상태이며, 해상운임도 급등시키고 있음. 어느 정도 양심껏 인상해야 마땅하나 너도 나도 해상운임 올린다고 무조건 운임 인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임.</p> <p><3> 중동지역 : 타지역인상으로 인해 함께 인상되어 올라가고 있음</p>
중국/일본	<p>일본구간 쉼링 강화로 인하여 운임 회복 및 SPACE 부족 현상 유지</p> <p>중국->한국 수입시 40'HQ 수급문제로 북킹잡기가 어려운 상황임.</p>
대양주	<p>12월 뿐만 아니라 1월달에도 SPACE 잡기가 어려운 상황임. 해상운임도 역대 최고금액이상으로 인상되었음.</p>

기타>

몇 년간 선사에서 적자를 많이 보았다는 이유로 이 기회를 삼아 사상최고 매출, 이익 경신 등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당히 해야할텐데, 막무가내로 운임을 올리고 SPACE확보도 어려움에 있음.